

전북 올림픽 유치전 총체적 허점 ‘난맥상’

경제성 조사 오류 초유의 사태…“책임자 처벌해야”
서울 공동개최 협력 지연 장기화 우려
국비 확보 방안 불투명…“도민 납득할 대책 내놔야”

전북도의 하계올림픽 유치가 치명적 오류와 함께 엉터리로 진행됐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위원장 김성수)는 23일 제430회 임시회에서 2036하계올림픽유치단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실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위원들은 단순한 선언적 유치전이 아닌, 명확한 재정 대책과 실질적인 범정부 협력 체계 구축 등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요구하며 강하게 질책했다.



김성수 위원장

김성수 위원장은 “국가 전문기관의 조사에서 결고 발생해서는 안 될 치명적인 오류가 확인된 만큼, 전북자치도 차원에서 한국스포츠과학원 측에 정확한 책임 소재를 묻고 법률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박형배 의원(전주7)은 서울시와의 공



박형배 의원

동개최 업무협약 지연 문제를 점검했다.

박 의원은 “이번 올림픽 유치는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큰 목적에 부합해야 하지만, 정작 파트너인 서울시의 태도는 다소 미온적인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단순히 선언적 의미에 머물지 않도록, 실무진 차원에서의 긴밀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오는 10월 도지사 공약 발표를 언급하며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도정 핵심 과제로 확실하게 무게를 실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정복 의원

장정복 의원(장수)은 2036 하계올림픽 유치가 초대형 국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국가적 협조와 전북도의 대응 성과가 극히 미진하다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IOC 후보도시 위촉까지 불과 8개월밖에 남지 않은 촉박한 시점임에도 아직 문제부 승인 절차에 머물러



박정규 의원

박정규 의원(임실)은 시대 흐름에 맞는 매체 홍보 전략의 다각화를 주문했다.

그는 “활자 매체 고정 구독층을 유지하되,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보다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국민들에게 유치 당위성이 노출될 수 있도록 세밀한 타겟 홍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숙 의원

이인숙 의원(비례)은 유치단의 불확실한 재정 계획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집행부가 국비 보조율을 기존 1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데 대해 “막대한 희망사항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질었다.

이어 “법정 부담률이 적용될 경우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며, “만약 국비 30% 상향이 불가능해질 경우 올림픽 유치를 재검토하거나 포기할 용의가 있는지 등 집행부의 냉철하고 명확한 현실 인식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 동물헬스케어 원스톱 생태계 구축

규제자유특구 최종 지정·고시
클러스터·산업지구 연계
신약개발 전 과정 전북서 지원
글로벌 산업허브 도약 본격화

전북도가 동물용의약품 클러스터와 농생명산업지구, 규제자유특구를 하나로 연결하며 대한민국 동물헬스케어 산업의 새 지평을 연다.

도는 지난 6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전북 차세대 동물용의약품 규제자유특구’가 최종 지정·고시됨에 따라 2027년부터 실증사업과 사업화를 본격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온 동물헬스케어 클러스터, 지난해 12월 지정된 익산 동물용의약품 농생명산업지구가 하나의 산업 생태계로 묶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반려인구 증가와 축산 첨단화, 바이오·AI 기술 발전에 힘입어 세계 동물헬스케어 시장은 빠르게 커지고 있다.

중심에는 총사업비 1,470억 원을 투입한 동물헬스케어 클러스터가 있다. 클러스터는 신약개발 단계별 핵심 기능을 한 곳에 모아 기업이 연구개발부터 시험·평가, 시제품 생산, 임상시험, 사업화까지 전 과정을 지역에서 완결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2023년 완공된 효능·안전성 평가센터(250억 원)를 시작으로, GMP 수준 시제품 생산시설(300억 원·2026년 완공), 반려·특수동물 임상시험센터(300억 원·2026~2029년), AI 기반 바이오팩토리(300억 원·2027~2030년), 기업 입주 공간인 동물헬스 벤처타운(320억 원·2028~2030년)이 순차적으로 들어선다. 특히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는 2024년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임상시험·비임상시험 실시기관 및 동물용의료가기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돼 허가에 필요한 공인 시험 역량을 확보했다.

동물용의약품 클러스터는 기반 시설



동물용의약품 클러스터 위치도

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전북도는 익산을 중심으로 동물용의약품 클러스터와 농생명산업지구, 규제자유특구를 연계

<사진=전북자치도>

을 넘어 산업 생태계가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제조공장과 기업부설연구소 등 9개 기업을 유치했고, 시험평가 40건(36억 원)을 수행해 기업 연구개발을 뒷받침했다. 지난해에는 2025 글로벌 동물헬스케어 포럼을 열어 국내외 산·학·연 협력망을 넓혔다. 인재 양성 역시 속도를 내 현장 실무형 전문인력 52명을 배출했으며, 지난 3월 전북대학교·원광대학교와 동물헬스케어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5월에는 도와 익산시, 전북대·원광대가 ‘그린바이오 동물헬스케어학부(가칭)’ 설치 협약을 맺어 산업 수요에 기반한 중장기 양성 체계를 마련했다.

동물헬스케어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이 모이고 성장할 공간도 넓어진다. 지난해 지정된 익산 농생명산업지구는 총사업비 49억 5,000만 원을 들여 2026~2030년 익산시 월성동·마동 일원 25.6ha에 조성된다. 동물용의약품 클러스터와 연계해 기업 유치와 연구개발, 사업화를 촉진하는 거점 역할을

맡는다. 올해는 산·학·연 공동활용 전문장비 구축, 기업지원 공간 리모델링과 시설 기능 보강에 나서는 한편, 동물용의약품 바이오팩토리·동물헬스 벤처타운 구축을 위한 타당성 조사에 착수한다.

특히 동물헬스케어 클러스터, 농생명산업지구, 규제자유특구를 기반으로 기업은 후보물질 발굴부터 효능·안전성 평가, 시제품 생산, 임상시험, 사업화, 글로벌 진출까지 신약개발 전 과정을 전북에서 원스톱으로 지원받게 된다. 도는 후속 인프라와 전문인력 양성,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글로벌 기업 투자유치를 이어가 전후방 산업이 맞물린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완성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전북은 클러스터 구축과 농생명산업지구·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연구개발과 산업집적, 규제혁신이 맞물린 성장 기반을 갖췄다”며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 동물헬스케어 산업을 이끄는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 물놀이 안전퀴즈 이벤트 운영

전북도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과 도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2026년 안전문화 확산 온라인 퀴즈 이벤트를 8월 11일까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도민들이 여름철 물놀이 안전수칙을 쉽고 재미있게 익히고 일상 속 안전수칙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도민 참여형 안전문화 캠페인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은 전북특별자치도 누리집 또는 공식 인스타그램·페이스북에 게시된 QR코드나 참여 링크를 통해 접속한 뒤 참여자 정보를 입력하고 물놀이 안전 퀴즈 2문항에 응답하면 된다.

퀴즈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과 관련된 핵심 안전수칙으로 구성해 도민들이 자연스럽게 안전사고 안전수칙을

익히고 실천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정답자 가운데 80명을 추첨해 안전홍보용품인 구명조끼를 증정할 예정이며 당첨자는 오는 8월 14일 발표하고, 당첨자에게는 개별 문자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도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물놀이 관리지역과 위험구역 운영, 안전관리요원 배치, 안전시설 점검, 현장 안전점검, 안전캠페인 등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이번 이벤트 역시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안전문화 확산 활동의 하나로, 생활 속 안전수칙 실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된다.

오택림 도민안전실장은 “물놀이 안전사고는 안전수칙을 실천하는 작은 습관에서부터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도의회 교육위 “포상성 국외연수 안 된다”

도교육청 직속기관 업무보고 청취

연수 방문기관 검증 부실 질타

교원연수 실효성 강화 주문

교육문화관 지역편중 개선 촉구

전북특별자치도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전용태)는 22일 제430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열고 도교육청 13개 직속기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장연국 의원

먼저 장연국 의원(전주4)은 교육연수원 질의에서 현행 교원 연수 프로그램이 승진이나 자격 취득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연수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교육연수원이 제시한 생애주기 연수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승진 점수 확보와 자격 취득을 위한 형식적인 연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교사가 교직 전반

에 걸쳐 수업과 생활지도 역량을 지속적으로 키울 수 있는 연수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생애주기 연수의 핵심은 단순한 법정 연수 이수가 아니라 교사 개개인의 성장과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는 맞춤형 연수”여야 함을 강조했다.



이병도 부의장

이 의원은 2023년 운전직 공무원 국외연수 과정에서 일부 방문기관의 방문 기록이 확인되지 않은 점과 친환경 통학버스 도입 사례를 조사하는 연수목적과 달리 관련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기관을 방문한 사례 등을 지적하며 연수의 실효성과 관리체계를 강화해 질타했다.

이어 “도민의 혈세로 추진되는 국외연수가 일부 교직원의 포상성 해외여행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며 “대상자 선정부터 방문기관 검증, 성과평가까지 제도를 전면 재정비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외연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전주학생교육문화관의 주차난 문제를 언급하며 “교육문화관이 지역 교육·문화 거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접근성이 우선 보장돼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주차환경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유민 부위원장

김유민 부위원장(군산5)은 교육문화관이 설치되지 않은 도내 다른 시·군 지역 학생과 주민들의 교육·문화적 소외 문제를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교육문화관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학생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교육·문화 자산”이라며 “현재 6개 지역에만 시설이 집중돼 있는 만큼 다른 시·군 학생들도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박수형 의원(비례)은 미래교육연구원 질의에서 데이터센터 화재와 주요 공공기관 재난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행정 데이터 보호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형 의원

박 의원은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해가 커지는 가장 큰 이유는 실시간 백업 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이라며, “미래교육원은 데이터 백업과 재난복구 체계를 강화하고 정기적인 복구훈련을 실시해 어떠한 재난 상황에서도 교육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종우 의원

최 의원은 “기관마다 ‘중점사업’, ‘중점과제’, ‘운영과제’, ‘추진과제’, ‘주요업무’ 등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해 정책을 비교하고 이해하는 데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며 “업무보고 작성 기준을 표준화해 교육행정의 일관성과 정책 전달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안호영 진안군 공모 3건 연속 선정 건인

국토부·수공 공모 잇단 선정 안 의원 “전략적 연계 성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진안군이 최근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공모사업 3건에 연이어 선정되며 총 47억 원 규모의 지역발전사업을 확보한 것과 관련, “공모사업을 전략적으로 연계한 성과”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보도료를 통해 “진안군이 수자원공사 담 지원사업 ‘수자원공사 2건, 국토부 1건 등 총 3건의 공모사업에 연이어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안 의원은 “수자원공사는 국회 기후노동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으로, 위원장으로서 현안 사업을 면밀히 챙겨온 결과가 지역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진안군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예산을 확보해왔다”고 강조했다.

‘스마트 그린로드 구축사업’은 수요응답형 교통(DRT), 전기차, 전기



안호영 의원

자전거 등 친환경 모빌리티와 체류형 거점을 결합한 통합형 모델로, 주민 생활이동 편의 개선과 관광·체류 수요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진안군은 수자원공사 공모사업인 ‘기억이 머무는 방향의 정원 재생사업’에도 선정돼 1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 이로써 진안군은 수자원공사 2건, 국토부 1건 등 총 3건의 공모사업에 연이어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안 의원은 “수자원공사는 국회 기후노동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으로, 위원장으로서 현안 사업을 면밀히 챙겨온 결과가 지역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진안군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예산을 확보해왔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목기자

전북 농촌돌봄 6년 연속 전국 최다 운영 ‘성과’

올해 농식품부 공모 27개소 선정

돌봄농장·생활돌봄공동체 확대

전북도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2026년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사업’에서 전국 최다인 27개소가 선정되며 6년 연속 전국 최다 운영 성과를 이어갔다

23일 밝혔다. 농촌지역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공동체 중심의 생활돌봄 체계를 구축해 온 노력이 전국 최고 수준의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사업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돌봄·복지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농촌지역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해 취약계층에게 돌봄과 치유, 교육,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농촌돌

봄농장과 주민들이 직접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를 운영해 농촌의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보완하고 지역 공동체의 돌봄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도는 올해 전국 176개 사업 대상지 가운데 27개소가 선정돼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을 운영하게 됐다. 2021년 11개소를 시작으로 2022년 18개소, 2023년 23개소, 2024년과 2025년 각각 26개소에 이어 올해 27개소까지 확대하며 6년 연속 전국 최다 운영 실적을 유지하고 있다.

농촌돌봄농장에서는 고령자와 장애인, 다문화가족,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농업활동과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군산의 농업회사법인 만나는 발달장애 청년들과 함께 파종과 재배, 수확

등 텃밭 활동을 진행하며 사회성과 자립 역량을 높이고 있으며, 부안 농업회사법인 이레농원은 지역 청소년과 다문화가족 자녀, 외국 청년이 함께하는 농업체험과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익산 봄과로라의 치유농장과 무주 자연마을, 부안 화동은 어르신과 경증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원예활동과 인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는 주민 스스로 지역의 돌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공동밥상, 반찬나눔, 도시락 배달, 주거환경 개선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진안 백운통합돌봄사회적협동조합은 올해 상반기 공동밥상과 반찬나눔을 통해 1,134명을 지원하고 마을 어르신 안부 확인 등 돌봄 활동을 지속 추진했으며, 남원지역활력

혁신센터와 부안 백산녹두꽃사회적협동조합도 반찬나눔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식생활 지원과 지역 돌봄 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있다.

도는 이 사업이 단순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넘어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활용해 지역 공동체가 스스로 돌봄 문제를 해결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 삶의 질과 공동체 회복력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을 확대해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농촌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민선시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농촌 돌봄서비스는 취약계층 지원은 물론 지역 공동체 회복과 농촌 활력 증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정철 기자

이춘석, 위기아동 보호·한부모 지원법 발의

이춘석 의원은 23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아동을 보호하고, 경제성지능 한부모 가정의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경제성지능 한부모 가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

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근 자신의 자녀를 학대해 숨지게 한 보호자가 공무원의 방문 조사 시 다른 아동을 자신의 자녀인 것처럼 속여 조사를 피한 사례가 발생해 현행 방문 조사 체계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춘석 의원

상 아동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 공무원이 해당 아동의 주소지 등을 방문해 양육환경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이춘석 의원이 발의한 관련법 개정안에 따르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양육환경 조사 시 ▲아동을 직접 대면하여 신원을 확인하도록 하고,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이춘석 의원이 발의한 관련법 개정안에 따르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양육환경 조사 시 ▲아동을 직접 대면하여 신원을 확인하도록 하고,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이춘석 의원이 발의한 관련법 개정안에 따르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양육환경 조사 시 ▲아동을 직접 대면하여 신원을 확인하도록 하고,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한병도 “이제 보완수사권 논란 마침표 찍을 때”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견지하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은 수사과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면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입장을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의 완성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늘 강조하신 지향점이자 국민주권정부의 확고한 국정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님과 민주당은 이 원칙에 대해 후퇴하거나 흔들리지 않았다”며 최근 장용기 사태로 인한 보완수사권 존치 의견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이대통령께서는 ‘검찰 개혁 역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 저항과 부담을 이유로 멈추거나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고 말씀하셨다고 소개했다.

또 “(대통령님께서는) 지난달에 국회와 민주당이 충분한 숙의를 거치고 국민의 견도 수렴해서 결정하라고 신뢰를 보내주셨다”며 “민주당이 숙의와 토론을 거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정밀하게 심



한병도 의원

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은) 의원총회와 공청회를 이어가며 당내외 의견을 수렴했고, 법사위는 어제 까지 총 8차례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열어 조문 하나하나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해오고 있다”며 “지

열했던 토론과 숙의에 마침표를 찍을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한 직무대행은 ‘경찰을 향해’와 관련하며 최근 장용기 사태로 인한 보완수사권 존치 의견을 일축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어 “최근 불거진 사건에 대한 엄벌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며 “장용기 사건”을 거론한 뒤에 “민주당은 경찰의 쇄신이 실제 이행되는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거듭 경찰의 쇄신을 촉구했다.

/서울=김영목기자

함께 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은 지능 지수(IQ)가 70~85 사이로 일상생활 및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제성지능’인 한부모 가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경제성지능 한부모 가정에 대해 주기적 가정방문을 통한 생

활 지도 및 상담을 제공하고, ▲신청이 있는 경우 가족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경제성지능 한부모 가정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살필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김영목기자

올바른 에어컨 사용 전략!

에너지 효율 UP! 전기요금 DWON!

1.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제품 사용하기



2. 에어컨과 선풍기 함께 사용하기



3. 에어컨 바람 방향이 위를 향하도록 설정하기



4. 에어컨 필터 청소하기



<디지털 전환·AI 전환>

전북TP ‘특수목적기계 산업 DX·AX’ 박차

제품 부가가치 향상 글로벌 신시장 개척 “현장 기술 한계 돌파”

전북도-익산시-김제시-전북TP가 ‘2026년 특수목적기계 개방형 A-SW 플랫폼 구축사업’ 선정기업 대상 ‘기술 멘토링 워크숍’을 23일 개최했다.

A-SW(Application Software)는 트랙터, 특장차 등 특수목적기계의 자동화, 무인 자율작업 및 작업자 충돌 방지 등 안전 모니터링 구현을 위해 범용으로

탐색되는 핵심 통합 소프트웨어 기술을 의미한다.

사업은 도내 농기계 및 특수목적기계 관련 제품을 보유한 기업들이 기존 제품에 A-SW를 적용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앞서 전북TP 사업에 참여할 도내 특수목적기계기업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지원 트랙1(A-SW 개발 및 보급지원) 1개사,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지원 트랙2(A-SW 실증제품 기획 및 설계) 3개사, 전북테크노파크 지원 트랙3(A-SW 시

장출시제품 기획 및 설계) 9개사’ 등 총 13개사가 최종 선정을 완료했다.

워크숍은 기획 및 설계 과제 착수 이후 초기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과제 완료를 위한 세부 추진방향을 조기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내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해 개별 기업의 타겟 제품 현황과 기존 제어 시스템의 한계점을 진단하고, 특수목적기계에 A-SW를 적용하기 위한 최적의 시스템 연계 방향성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과 멘토링을 통해 익산시, 김제시 등 도내 밀집된 특수목적기계

산업이 겪고 있는 현장 기술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내 기업들의 제품 부가가치 향상 및 글로벌 신시장 개척은 물론 지역 내 양질의 S/W 청년 유입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테크노파크 이규택 원장은 “특수목적기계 산업에 A-SW를 적용하는 디지털 전환은 전북 주력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일선 기업들이 겪는 기술적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맞춤형 밀착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정소민 기자



<사진=북전주농협>

북전주농협 ‘농산물 소비 촉진’ 소비활동

원동 복숭아 대축제
소비자 홍보활동 이어

지역 대표 특산물 원동 복숭아 소비 촉진에 북전주농협이 앞장서 다양한 소비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우광 북전주농협조합장은 하 나로마트 판매장에서 24일까지 ‘복숭아 대축제’ 판매전을 펼치고 있다.

이 조합장은 행사기간 내내 다양한 품종 복숭아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홍보하며 열린 판매전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판매전을 통해 이 조합장은 시식 행사 등을 소비자들에게 시식해 주며 가격 또한 적절한 할인 판매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에게는 북전주농협의 다양하고 풍성한 혜택을 마주하며 행복함을 보여주고 있다

행사는 지역 농업인 원동 복숭아

우수성 홍보와 함께 △생산농가 판로 확대 △농가 소득 증대 등에 중점을 두고 이어지고 있다.

북전주농협 이우광 조합장은 “원동 복숭아는 품질과 맛이 뛰어난 지역의 자랑거리”라며, “24일까지 진행되는 원동 복숭아 소비 축제를 통해 농업인들에게도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원동 복숭아는 ‘풍부한 일조량’, ‘큰 일교차에 의한 풍부한 과즙’, ‘높은 당도’, ‘부드러운 식감’, ‘진한 향’을 자랑하는 지역 대표 여름 과일이다.

뛰어난 품질은 앞서 소비자 평가로 이어지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지역 특산물 원동 복숭아는 북전주농협 선별장에서 엄선된 복숭아만을 선별해 하나로마트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농진청, 현장 이끌 축산기술 전문 인력 양성

지방농촌진흥기관 연구·지도사 대상 교육

농촌진흥청이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축산 기술 보급을 담당할 전문인력 양성에 나섰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22일~23일 이틀간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지방농촌진흥기관 연구 지도사 등을 대상으로 ‘축산기술 전문가(축산기술사)’ 양성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축산 담당자의 현장 지도 역량을 높이고, 축산기술사 자격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축산기술사 자격 취득을 준비하는 지방농촌진흥기관 소속 연구·지도사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축산기술사는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축산에 관한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시험, 운영, 시공, 평가와 이에 관한 지도, 감리 등 고도의 전문기술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술자격이다. 1988년 자격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196명에 불과할 만큼 난도가 높은 자격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근무하는 축산기술사 자격증 보유자는 총 19명이다. 평균 연령은 49.4세이며, 공무원 평균 근무 경력은 20.2년, 축산 업무 경력은 11.7년이다. 축산 현장의 전문성을 지속하기 위해 기존 전문가의 경험을 전하고, 새로운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국립축산과학원은 축산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현장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했다. 강사진은 실제 자격시험 준비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시험 경향과 학습



<사진=농촌진흥청>

방법, 답안 작성 요령 등 유익한 정보를 공유했다.

교육 과정은 축산 기술사 시험과 현장 기술 지도에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가축개량과 육종, 가축 번식, 축사 시설환경, 사료작물, 가축영양, 가공 및 유통 분야 등을 다뤘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지방농촌진흥기관 축산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축산신기술 보급 기술 설명회, 사료작물 재배 교육, 대가축 TMR 사양관리 기술 교육 등 다양한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소민 기자

국민연금-한전 “연금 수급자 안전 확인한다”

데이터융합 전기사용 위기 신호 감지

국민연금공단-한국전력공사는 지난 22일 공공데이터 연계 국민 중심 민생 지원 강화 업무를 체결했다.

협약은 각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연계해 그동안 행정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복지 소외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민연금은 한국전력의 전기 사용 데이터를 활용해 평소 대비 전기 사용량이 급감하거나 장기간 사용이 없

는 경우 출장, 전화 등을 통해 수급자의 안전과 수급권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 수급자에게는 생필품 지원, 말벗 등 공단 사회공헌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한국전력공사는 국민연금공단의 사업장 정보 등을 활용해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탈퇴사업장, 근로자 수 등 국민연금 사업장 정보를 활용해 휴·폐업 복지시설 등을 검증함으로써 부적정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방지해 복지에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사진=국민연금공단>

두 기관은 이번 협력을 계기로 데이터 기반 행정을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지속적

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전기안전인재개발원 ‘고교학점제’ 교육 확대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인재개발원(원장 박지영)이 직업계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고교학점제 교육과정을 확대한다.

전기안전인재개발원은 지난해 직업계고 고교학점제 교육과정을 수료한 학생 90명 가운데 4명이 올해 한국전기안전공사 채용형 인턴에 합격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인재개발원은 지난해 3개교와 진행한 전기설비실무 등 4개 과정을 올해 여수석유화학고등학교와 순천미래고등학교를 추가해 5개교 6개 과정으로 운영한다.

교육은 전문 강사의 이론교육과 현

장에서 사용하는 장비를 활용한 실습을 병행해 전기안전 분야의 실무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됐다.

박지영 원장은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인재개발원은 공공기관 최초로 고교학점제 운영 협약을 체결해 인재 양성에 힘써왔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전문 교육을 통해 적성과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교학점제란 고등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하고 누적해 졸업하는 제도다.

/정소민 기자



전북은행-동아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지원 협력

취업 및 지역 정착 지원
업무협약 체결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박춘원) 부산외국인금융센터는 동아대학교와 외국인유학생 취업 및 지역 정착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실질적인 취업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동시에 이들이 졸업 후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상호신뢰 기반의 협력

체계 구축 △채용 공고 및 직무요건 등 취업정보 공유 △대학 추천 우수 유학생 대상 면접 기회 제공 △인턴십 및 산학협력 채용 연계 공동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전북은행 부산외국인금융센터에는 동아대 유학생 출신 외국인들이 실제로 채용돼 우수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이번 협약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취업의 문을 열어주는 강력한 산학 연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

/김영태 기자

중기부 ‘스마트제조기술산업 특수분류’ 제정

중기부와 국가데이터처(처장 안형준)는 스마트제조기술산업 특수분류를 제정해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제조업은 인공지능(AI), 디지털 트윈, 산업용 로봇, 스마트센서 등 디지털·인공지능 기술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그동안 스마트제조기술 공급기업을 식별할 수 있는 산업분류가 없어 별도의 특수분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특수분류는 제조 인공지능을 비롯한 스마트제조 관련 기술을 산업활동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위한 최초의 기준이다.

이는 제조업의 디지털·인공지능 전환을 국가 통계와 산업정책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스마트제조기술산업 분류체계는 △스마트제조 자동화기기 제조업 △스마트제조 연결화기기 제조업 △스마트제조 정보화솔루션 개발 및 공급업 △스마트제조 지원 서비스업 등 4대 영역의 대분류로 구성된다.

정부는 2014년부터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지원해 왔으며, 이에 따라 스마트제조기술 중소기업(이하 ‘기술 중소기업’)도 양적으로 증가해 왔다. 그러나 선진국과 비교해 기술수준은 아직 낮고, 이들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중기부는 기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2024년 스마트제조혁신 생태계 고도화 방안과 2025년 10월 AI기반 스마트제조혁신 3.0 전략을 수립했다. 2026년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조AI 2030도 발표하는 등 스마트제조기술산업 분류체계의 제정을 제도적 기반으로 추진해 왔다.

권순재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은 “역량있는 스마트제조기술 중소기업의 발굴과 중소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과의 협업 촉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하반기 ‘스마트제조혁신법’의 전면개정을 중점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익산소방서, 심정지 환자 자발순환회복률 끌어올려

익산소방서는 20일부터 22일까지 병원 전 심정지 환자의 자발순환회복률 향상을 위해 구급대원과 펌블런스 대원을 대상으로 고강도 팀워크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익산 관내 병원 전 자발순환회복률은 지난해 동기 대비 0.3% 상승한 21.1%를 기록했으며, 2025년 17.9%보다 3.2%p 상승했다.

심정지 환자 발생 현황은 돌발 상황이 많고 정맥로 확보, 기관내 삽관, 약물 투여 등 전문 응급처치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는 만큼 대원 간 일관적이고 체계화된 의사소통이 중요해 반복 훈련이 필수적이다.

훈련은 실제 심정지 발생 현장과 유사한 가상 상황을 구현해 대원 간 명확한 역할 분담과 소통에 중점을 두고 구급차와 펌프차가 동시에 출동하는 다중출동 상황에 맞춰 진행했다.

훈련 종료 후에는 개인별 피드백을 통해 훈련 중 나타난 미흡한 점에 대해 분석하는 등 보완 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연관하며 현장에 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의견을 공유했다.

소철환 소방서장은 “앞으로도 실전과 같은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구급대원의 현장 대응 역량을 끌어올리고,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흡연·음주 위험성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배운다

정읍시보건소가 오는 27일부터 지역아동센터 30곳을 찾아 학생들을 대상으로 흡연·음주 예방교실을 운영한다.

여름방학을 맞아 마련한 이번 교육은 8월 14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단순한 강의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면서 흡연과 음주의 위험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흡연과 음주는 한번 시작하면 끊기 어려운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성장기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조기 예방교육이 중요하다.

보건소는 흡연·음주 예방교육과 함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올바른 손 씻기, 여름철 안전한 식품 섭취 방법도 안내한다. 건강한 습관 형성을 위한 영양교육과 비만 예방교육도 병행해 학생들의 전반적인 건강관리를 돕는다.

손희경 시 보건소장은 “청소년기에 금연과 절주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은 평생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다”며 “학생들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전국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우수기관’ 선정

군산한마음지역자활센터가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6년 전국 지역자활센터 간 이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전국 250개 지역자활센터를 대상으로 자활사업 운영 역량과 성과를 평가하고 있으며, 올해 평가는 참여자의 자활역량 증진과 운영 전문성 등 16개 지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군산한마음지역자활센터는 다수의 평가 지표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특히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자활근로사업과 자산형성 지원사업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뒀으며, 참여자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사례관리 운영 성과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도영 군산한마음지역자활센터장은 “앞으로도 저소득층 주민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자활서비스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군산·정읍, 폭염 대응 강화 2(題)

군산시, 지역 맞춤형 대책 추진

양산·생수 지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산시가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대응해 시민들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한 지역 맞춤형 폭염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유동인구가 많고 열섬현상이 심한 도심지역에는 전통 시장과 근대역사지구 등 10개소에 생수를 비치해 시민과 관광객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대책은 지역별 환경과 이용 특성을 고려해 농촌 지역에는 ‘양심양산 대여사업’, 도심지역에는 ‘ 시원한 생수 지원사업’을 집중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군산시는 폭염대책 기간인 8월 말까지 생수를 지속적으로 보충하고 양산 회수율도 상시 관리할 계획이다.
고령 인구 비중이 높고 야외 활동이 많은 읍·면 지역에는 행정복지센터에 양산 1,210개를 비치해 누구나 자유롭게 대여·반납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폭염대책으로 시민들이 무더위를 보다 안전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나 자유롭게 대여·반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폭염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산은 강한 햇볕과 자외선을 차단하고 체감온도를 약 7℃ 낮춰 온열질환 예방에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온열질환 예방 홍보

안전문화 확산 ‘총력’	마시기 △ 시원한 곳에서 휴식하기 △ 무더운 시간대 작업 자제하기 등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안내했다. 중대 재해를 막기 위한 현장 안전수칙 준수도 당부했다.
정읍시가 산업안전보건의 달을 맞아 시민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온열질환과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나섰다.	시는 지난 22일 오전 정읍 제일고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정읍시’를 구호로 안전문화 실천 운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여름철 온열질환과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일상과 산업현장에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난안전과 직원과 읍·면·동 안전과수준 등 40여 명이 출근길 운전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 실천의 중요성을 알렸다.	이학수 시장은 “산업현장에서 묵묵히 안전을 실천하고 있는 사업장과 안전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다”며 “지역사회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여자들은 △충분한 물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양파농사 기계화 ‘시동’

사업비 11억 원 투입 핵심 장비 장기임대 지원

익산시가 농촌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부담을 덜기 위해 양파 농사 기계화를 본격 추진한다.

시는 23일 덕기동에 있는 익산원에농협 저온창고에서 ‘발농업 기계화 우수모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고, 양파 재배 기계화 기반 구축에 나섰다.

이날 협약식에는 류숙희 익산시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김봉학 익산원에농협 조합장, 양파 재배 농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농업기계 장기임대차 계약

을 체결하고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1억 원을 투입해 육묘 파종부터 정식, 수확까지 양파 재배 전 과정을 기계화하는 현장 중심의 지원사업이다.

익산시는 지난해 3월 양파 주산지 지정 이후 기계화 기반 확대를 추진해 왔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정식기 12대와 트랙터 2대, 수확기 2대 등 총 9종 24대의 핵심 농업기계를 확보했다.

확보한 농업기계는 익산원에농협에 내구연수인 5년 동안 장기 임대되며, 원에농협은 기계 구입가격의 5%를 임대료로 부담한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파종·정식 작업 등의 기계화를

을 기존 8%에서 44%까지 높여 농작업 효율 향상과 생산성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파 재배 농가인 진경호 씨(여산면)는 “농촌 고령화로 일손을 구하기 어려워 기계화가 절실했다”며 “가장 노동력이 많이 드는 작업을 기계가 대신하게 돼 농가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류숙희 익산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발농업 기계화 우수모델 지원사업은 양파 농가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발작물 기계화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농가의 경영 안정과 소득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을 바꿀 아이디어 찾습니다”

내달 21일까지 ‘시민 정책제안’ 공모

정읍시가 시민의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내달 21일까지 정책제안을 공모한다.

시는 시민 중심의 시정을 구현하고 지역 발전을 이끌 창의적인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2026년 하반기 시민참여 정책제안 페스티벌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에는 정읍시민뿐만 아니라 과거 1년 이상 정읍에 거주한 이력이 있

거나 정읍시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한 사람도 응모할 수 있다. 1인당 최대 2건까지 제안할 수 있지만, 사항은 1인 1건으로 제한된다.

공모 주제는 △일상생활 속 불편 해소와 생활환경 개선 △생활인구 확대와 가족친화 정책 △골목상권 활성화 △청년 일자리 창출 △체류형 관광·먹거리·축제 활성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기부금 활용 △그 밖의 정읍 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정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정읍시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시청 기획예산실을 방문하거나 우

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팩스(063-539-6504)와 전자우편(sktjddn12@korea.kr)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우편접수처는 정읍시 총정로 234 정읍시청 3층 기획예산실이다.

시는 접수된 제안의 창의성과 실현 가능성, 정책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오는 10월 중 정읍시 홈페이지에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시민의 소중한 의견을 시정에 충실히 담아내겠다”며 “더 나은 정읍을 만들기 위한 정책 발굴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지역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주)밀투고 생산시설 준공 일자리·경제활성화 기대

익산에 20억 원 규모의 식품 생산시설이 들어서며 지역 일자리 창출과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익산시는 샐러드 및 신선식품 전문기업인 (주)밀투고(대표이사 조정재)가 23일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제조 공장을 신축하고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장에서 열린 준공식에는 최정호 익산시장, 박승수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산업진흥처장, 정세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실장, 안진영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협회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준공을 축하했다.

(주)밀투고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

업으로 총 20억 원을 투자해 국가식품클러스터 부지 1,653.7㎡에 연면적 709.2㎡ 규모의 생산시설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샐러드류와 가정간편식(HMR) 제품의 대량생산 체계를 갖추고 연매출 50억 원 달성을 목표로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근로자 15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익산시는 기업 투자와 생산시설 확충이 지역 일자리 창출은 물론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정재 대표는 “이번 공장 준공은 밀투고가 차세대 식품시장을 개척하고 전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익산 공장에서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생산체

를 구축해 소비자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제품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박갑수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은 “익산에 투자를 결정하고 새로운 생산시설을 구축해 준 (주)밀투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투자와 일자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밀투고는 신선식품 정기배송으로 사업을 시작해 전국으로 서비스를 확대했으며, 과채류 선도유지 기술 이전과 WPI(분리유청단백질) 프로틴 도우를 활용한 ‘집피자’ 개발 등으로 가공간편식(HMR) 분야까지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시 ‘NS푸드페스타’ 참가자 모집

국내 최대 규모 요리경연 일반·가족부문 순차 모집

식품산업도시 익산에서 열리는 식품문화축제 ‘NS푸드페스타’가 전국의 요리 실력자들을 기다린다.

익산시는 오는 10월 16~17일 개최하는 ‘NS푸드페스타 2026 익산’의 요리경연대회 참가자를 일반부와 가족부문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합연을 제4일반산업단지에 위치한 하림 퍼스트키친에서 진행되는 NS 푸드페스타는 총상금 약 1억원, 국내 최대 규모의 전국 요리경연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일반부문은 참가 자격 제한 없이 2인 1팀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27일부터 내달 23일까지 참가신청을 받는다. 가족부문은 부모 1명과 초등학생 자녀 1명이 한 팀을 구성해 참가하며, 내달 27일부터 모집을 시작한다.

본선에는 일반부문 60팀과 가족부문 60팀이 진출한다. 일반부문은 ‘자연의 신선한 식재료로 만든 밀식재료로 만든 도시락’을 주제로



<사진=익산시>

각각 오는 10월 16일과 17일 현장 경연을 펼친다.

참가 신청 관련 내용은 NS홈쇼핑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운영사무국 전자우편 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정광래 미식위생과장은 “NS푸드페스타는 우리 식재료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창의적인 미식 문화를 확산하는 의미 있는 축제”라며 “전국의 많은 참가자와 시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대표 식품문화축제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 조성”

불법 상행위 시설 3곳 철거

정읍시가 하천·계곡의 불법 상행위 시설 3곳을 모두 철거하고, 적발된 불법행위 637건에 대한 정비에 이어간다.

이번 정비는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로 인한 시민 불편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 공간을 회복하기 위해 추진된다.

앞서 정부는 대통령 지시와 국무회의 논의를 거쳐 전국 하천·계곡의 불법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추진 체계를 마련했다. 이에 시는 전담반(TF)을 구성하고 종합 정비계획을 수립해 불법행위 637건을 적발한 뒤 사전 계도에 나섰다.

현재까지 적발된 불법행위 가운데 196건은 조치를 마쳤으며, 나머지 441건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시민 이용을 방해하는 하천 내 불법 상행위 시설을 우선 정비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적인 정비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적발된 3곳을 모두 철거해 100%의 철거율을 기록했다.

이학수 시장은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하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담반을 중심으로 불법시설 정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강력한 단속을 통해 하천 본래의 깨끗하고 안전한 모습을 되찾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 중앙로 구간 불법주정차 본격 단속

8월부터 과태료 부과

군산시는 중앙로(이성당~해신동 행정복지센터)구간의 주차질서 확립과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당 구간은 그동안 지역상권 활성화와 관광객 편의를 고려해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유연하게 운영해 왔다. 하지만 최근 상습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과 보행자 안전 문제가 심각해지고, 이에 따른 시민들의 단속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현재의 계도 중심 운영만으로는 실질적인 주차질서 확립과 보행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불법주

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7월 말까지 사전 계도와 홍보를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15일 해남 1 구간에 폭자형 현수막을 설치하고 상가를 직접 방문해 안내문을 배부했으며, 해신동·월명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도 단속 전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군산시 교통행정과장은 “충분한 사전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친 후 8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한국가요촌 달하 ‘새 볼거리’ 풍성

정읍시가 한국가요촌 달하에 수국정원과 야간 경관조명을 조성해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산책 공간을 제공한다.

최근 가요전시관을 새롭게 단장해 운영에 들어간 한국가요촌 달하에는 다양한 종류의 원예수국과 목수국으로 꾸민 정원이 조성됐다.

현재 목수국이 탐스러운 꽃을 활짝 피우면서 정원의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다. 산책로를 따라 이어지는 하얀 꽃송이는 방문객들에게 여름의 정취를 느끼며 여유롭게 걸을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한다.

시는 밤에도 수국정원을 즐길 수 있도록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했다. 은은한 조명이 수국과 산책로를 비추면서 낮과는 다른 분위기를 연출해 한국가요촌 달하를 낮과 밤 모두 찾을 수 있는 새로운 산책 명소로 만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식재 초기 단계여서 원예수국의 규모가 다소 작지만, 내년에는 더욱 풍성하고 화려한 모습을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과 관광객들이 계절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여유롭게 산책할 수 있는 정원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완주군의회, 민생지원금 조례안 의결

추경 심의 앞두고 ‘첫 단추’

조례안 등 14건 본회의 통과

완주군의회(의장 성중기)는 23일 제 30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1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완주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14건의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특히, 이번에 처리된 「완주군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완주군민에게 한시적으로 민생안정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이 밖에도 완주군의회는 군민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의·의결하며 정책의 실효성과 행정의 안정적인 추진을 뒷받쳤다.

성중기 의장은 “의회가 처리하는 모든 안건은 군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의결했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를 최우선에 두고 민생을 살피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의회는 오는 24일부터 모든 의원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통해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이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中 염성시와 자매결연 30주년 우의 다져

염성시 대표단 22일 남원 방문

바이오·뷰티 협력 확대 모색

남원시(시장 양충모)는 국외 자매도시인 중국 강소성 염성시 대표단이 자매결연 30주년을 기념해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남원시를 공식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1996년 6월 13일 두 도시가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30년간 이어온 두터운 우정을 기념하고, 행정·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상호발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국 강소성 중둥부에 위치한 염성시는 인구 720만 명 규모의 대표적인 산업도시로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SK온 등 다수의 한국 대기업이 진출해 있는 지역이다.

남원시와는 지난 30년간 견고한 파트너십을 유지해 왔으며, 올해 4월 염성시 대표단이 남원 총향제를 찾은 데 이어 지난 5월에는 남원시 대표단이 직접 염성시를 방문해 자매결연 3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교류 협력 심화 양



<사진=남원시>

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우의를 다져오고 있다.

탕정 부시장을 비롯한 염성시 대표단은 방문 첫날인 22일 남원에 도착해 광한루원, 피오리움, 시립김병종미술관 등 남원의 주요 명소를 관람했다.

방문 이튿날인 23일 오전에는 양 도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자매결연 30주년 기념행사가 진행되었다. 남원시 홍보영상 시청하고 남원시의 화장품과 염성시의 백주 등 각 지역 특산품을 기념 선물로 교환하며 변함없는 우

의를 확인했다. 이어 대표단은 남원의 신성장 동력인 남원바이오산업연구원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전체 일정을 마무리했다.

양충모 남원시장은 “지난 30년 동안 신뢰를 바탕으로 이어온 염성시와의 인연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대표단 방문을 계기로 기존의 문화·관광 교류를 넘어 바이오와 뷰티 등 미래 신산업 분야까지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해 양 도시가 동반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저탄소 농산물 인증 확대…신규 농가 모집

29일까지 신규 인증 접수

교육·컨설팅·행정 지원

순창군이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해 저탄소 농산물 인증 참여 농가를 모집한다.

군은 오는 29일까지 '2026년 저탄소 농산물 2차 신규 인증'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은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해 농산물 생산 전 과정에서 에너지와 농자재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한 농산물에 부여

되는 국가 인증제도다. 친환경 농업산은 물론 농산물의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순창군은 지난해부터 딸기 공인회와 복숭아 연구회를 중심으로 저탄소 농업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며 인증 기반 확대에 힘써왔다.

그 결과 현재 딸기와 복숭아, 상추 등 3개 품목, 14.2ha 규모의 24개 농가가 저탄소 농산물 인증을 획득했다. 올해도 딸기 재배농가 29곳(11ha)이 인증 신청을 마치고 심사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군은 이번 2차 모집을 통해 더 많은 농업인이 인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교육과 컨설팅, 인증 관련 행정 지원도 지속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개인 최대 200만원, 단체 최대 400만원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저탄소 농산물 인증은 환경을 보호하는 동시에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의미 있는 제도”라며 “순창군이 저탄소 농업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바이오기업 투자유치 본격 지원

IR 역량강화 프로그램 추진

맞춤형 투자컨설팅 제공

남원시는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과 함께 바이오·화장품 분야 기업의 투자 역량을 강화하고 유망 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바이오산업 투자유치 활성화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추진하는 ‘2026년 바이오산업 육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창업 초기와 성장 단계 기업이 투자유치에 필요한 역량을 체계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경영·투자 역량강화 교육 △기업별 투자유치(IR) 역량강화 컨설팅 △IR 피칭데이 등 교육부터 투자자 대상 발표까지 단계적으로 연계하는 실천형 과정으로 운영된다.

첫 단계로 지난 5월 바이오·화장품 분야 예비 창업자와 기업 관계자를 대

상으로 경영·투자 역량강화 교육을 시행했다. 당초 목표 인원 20명을 크게 웃도는 36명이 참여했으며, 총 8일간 창업·경영 기초부터 사업화와 투자유치 실무까지 집중교육이 이뤄졌다.

교육은 기업가정신과 정부 지원 사업 활용 전략을 비롯해 △바이오 상품 기획 △마케팅과 브랜딩 △지식재산권 전략 △회계·재무관리 △인허가 대응 △투자유치 전략 △사업계획서 작성과 발표 등 실제 기업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교육에 이어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바이오·화장품 기업 3개사를 선정해 기업별 맞춤형 IR 역량강화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컨설팅에서는 기업의 기술력과 시장성, 사업 모델,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투자자에게 기업의 핵심 경쟁력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IR 자료와 발표 내용을 고도화한다. 전문가와 함께 기업의 성장 전략

과 투자유치 스토리를 구체화하고, 피칭 훈련과 예상 질의응답 등 실제 투자 상담에 대비한 실무 지원도 제공한다.

컨설팅을 마친 기업들은 오는 9월부터 10월 중 개최 예정인 ‘IR 피칭데이’에 참가해 투자자와 기업 지원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 모델과 성장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행사에서는 투자시장 동향을 공유하는 전문가 특강과 기업별 발표, 투자자 개별 상담, 관계 기관 네트워킹 등을 함께 운영해 참여기업의 투자 가능성을 점검하고 민간 투자자와의 접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양충모 남원시장은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보유하고도 투자유치 경험과 전문 역량이 부족해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있다”라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들이 경영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과 성장 가능성을 투자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희귀종 ‘맹구알버섯’ 남원 산내면에서 13년 연속 발견

남원 산내면 입석마을 주지환(63) 이장은 이달 자신의 농장에서 올해 첫 맹구알 버섯을 발견했다. 주 이장은 지난 2014년부터 13년 연속 꾸준히 맹구알 버섯을 발견했으며 맹구알버섯은 국내에서는 1989년 계룡산서 첫 발견된 기록이 있으나 이처럼 한 지역에서 꾸준히 나온 경우는 드물어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남원시>

완주 상관면 구도심 도시재생으로 ‘활력’

77억 투입 도시재생 성과

골목·주거환경 대폭 개선

과거 행정복지센터가 위치하며 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완주군 상관면 구도심이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다시 사람과 활력이 모이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상관면 구도심은 2013년 행정복지센터 이전 이후 유통인구 감소와 상권 침체로 활력을 잃었지만, 완주군이 2019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본격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며 새로운 변화를 맞았다.

총사업비 77억 원이 투입된 이번 사업은 주민들이 다시 찾고 머무는 생활공간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골목길 정비, 역사거리 조성, 벽화 조성과 경관조명 설치, 시시 티브이(CCTV) 확충 및 새원역사길 정비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며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또한 노후주택 42호에 대해 집수

리를 사업을 함께 진행하며 정주환경 개선과 주거복지향상에도 힘을 쏟았다.

도시재생의 중심인 새원복합어울림센터는 북카페, 스테디룸, 건강증진실, 동아리방, 헬스장 등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됐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헬스장은 현재 160여 명의 회원이 이용하며 구도심 방문객 증가와 함께 주변 상권에도 활력을 더하고 있다.

안산호 하원신마을 이장은 “예전에는 저녁이면 적막했던 거리가 이제는 주민들이 모이고 웃음이 넘치는 사람 냄새 나는 공간으로 바뀌었다”며 “도시재생사업과 행정의 적극적인 추진력이 구도심을 다시 살아 숨 쉬는 중심지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새원복합어울림센터를 중심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전통 장류 우수성 국제무대서 소개

국제학술대회 연구성과 발표

항염·면역조절 효과 확인

(재)순창군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한국식 품저장유통학회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해 전통 장류의 기능성과 안전성을 입증한 최신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원하는 ‘장류 기능성 규명(안전성 모니터링) 사업’의 일환으로, 전통 장류의 과학적 우수성을 입증하고 K-푸드의 세계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진흥원은 이번 학술대회 기간 중 ‘전통 장류의 기능적 특성 및 메커니즘’을 주제로 별도 심포지엄을 직접 주관해 운영하며 학계와 산업계의 큰 관심을 모았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시설관리공단, 인재육성재단과 ‘맞손’

공공시설 활용 인재육성 확대

교육·체험 프로그램 공동 운영

완주군시설관리공단과 완주군인재육성재단이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공가치 실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지역 청소년과 주민에게 다양한 교육 및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지역인재를 대상으로 공공시설 현장체험과 견학을 지원하고 교육·문화·체육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할 방침이다.

공단이 운영하는 고산자연휴양림과

체육시설 등 다양한 공공시설을 활용한 현장체험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연계 활동으로 미래 인재들에게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공동 추진하며 기관 공동 홍보를 통한 지역사회 교육 활성화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희수 이사장은 “공단이 보유한 시설과 운영 경험을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적극 활용하겠다”며 “완주군인재육성재단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배움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공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두물머리 바닥분수 가동 25일부터 30일간 무료 운영

순창군이 본격적인 여름철 무더위를 맞아 군민들을 위한 수변 휴식공간을 운영한다.

군은 ‘경천·양지천 수변 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구축된 순창읍 남계리 두물머리공원 내 바닥분수 물놀이 수경시설을 올해 처음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바닥분수 운영은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이한 어린이들과 군민들에게 한여름 밤의 열기를 식혀줄 시원한 피서공간을 선물하고, 경천 일대를 명품 친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마련됐다.

운영 기간은 25일부터 8월 23일까지 총 30일간이며, 누구나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운영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아이들의 안전과 시설 과열 방지를 위해 30분 단위로 가동된다. 단, 시설 점검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점심시간(12:00~13:00)과, 깨끗한 수질 관리를 위한 정기 물 교체 및 시설 정비가 진행되는 매주 월요일은 휴무한다.

특히 군은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이 주 이용객인 만큼 정기적인 시설 안전 점검을 통해 군민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방침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담양군의회 남원 방문

스마트 홍수관리 벤치마킹

남원시는 지난 21일 담양군의회 의원 및 관계 공무원들이 남원시 지방하천(율천)에서 운영 중인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방하천의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하천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담양군의회 부의장 3명 의원 및 관계 공무원들은 남원시청을 방문해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의 주요 기능과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무실에서 시스템을 활용한 시설물 원격 작동 시연을 참관하며 시스템의 운영 방식과 원격 제어 기능 등을 확인했다.

이후 지방하천 율천으로 이동해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이 설치된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시스템의 현장 운영 방식과 주요 시설물을 살펴봤다. 또한 국가하천(요천)에 설치된 기설가동보의 하천 시설물의 운영·관리 현황도 함께 확인하며 하천 시설물의 관리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남원시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구축 후 인수·인계 받은 지방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청소년 생태체험학습장 ‘풀풀정원’ 조성

완주군 이서청소년문화의집이 주민참여 예산 아동·청소년 분야 지원사업으로 조성한 생태체험 온실하우스의 공식 명칭을 ‘풀풀(Pool-Full)정원’으로 선정하고 청소년 생태체험학습장으로 본격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청소년들이 자연을 가까이서 체험하며 환경의 중요성과 지속가능한 삶의 가치를 배우도록 마련됐다. 단순한 온실을 넘어 다양한 생태체험과 환경교육, 청소년 참여 활동이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생태체험 온실하우스는 이서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카페 ‘수다방’ 옆에 24㎡ 규모로 조성됐으며 총사업비 1,500만 원이 투입됐다. 온라인 네이밍 공모전에는 청소년지도자, 학부모, 주민 등 80여 명이 참여했으며 투표와 심사를 거쳐 확정된 ‘풀풀정원’은 풀내음이 풀풀 나고 초록빛이 가득한 공간이라는 뜻과 청소년의 아이디어가 가득 채워지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다.

이서청소년문화의집은 현재 온실 내부를 식물 재배 및 관찰 공간, 생태교육 구역, 청소년 휴식 공간으로 꾸미고 있으며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와 협력해 전문적인 생태·원예 체험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완주=김명곤기자



임실군 조사로 경영체 협의회 취약계층 위해 성금 300만원 기부

지난 22일, 임실군 조사로 경영체 협의회(회장 임장두)는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성금 300만원을 임실군에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회원들의 뜻을 모아 마련됐으며, 평소 지역 복지와 나눔문화 확산에 관심을 가져온 협의회는 취약계층에게 작은 보탬이 되고자 이번 성금을 기탁했다.

전달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임실군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임실군 조사로 경영체 협의회는 관내 18개 조사로 경영체로 구성된 단체로,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한득수 임실군수는 “지역 축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임실군 조사로 경영체 협의회가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까지 실천해 주셔서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며, “기탁해 주신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소중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부안 진서면, 취약계층 폭염 피해 예방 '앞장'

부안군 진서면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부터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하절기 취약계층 어르신 안부 확인과 무더위 쉼터 경로당 방문을 실시하며 폭염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안부 확인은 폭염에 취약한 독거노인, 고령가구 등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해 건강 상태와 생활환경을 점검하고, 냉방기기 작동 여부와 온열질환 예방 수칙을 안내하는 한편, 안부를 세심히 살피며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 추진됐다.

아울러 관내 경로당 18개소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냉방시설 운영 상태와 실내 온도를 점검하고,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와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연태 진서면장은 “폭염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자연 재난인 만큼 무엇보다 예방과 관심이 중요하다”며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익산시 '취학 전, 천 권 읽기' 1호 주인공 탄생

정이든 어린이, 1년간 꾸준한 독서 '결실'

익산시 영등도서관이 운영하는 유아 독서 프로그램 '도란도란 취학 전, 천 권 읽기'에서 첫 번째 완주 어린이가 탄생했다.

익산시는 정이든 어린이(6세)가 약 1년 동안 꾸준한 도서관을 이용하며 독서를 이어온 끝에 1,000권 읽기를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정이든 어린이는 개인별 '마롱독서노트'에 독서 기록을 성실히 쌓아 프로그램 첫 인증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인증서와 기념품을 받고 영등도서관 어린이실 명예의 전당에도 등재됐다.

'도란도란 취학 전, 천 권 읽기'는 익산시에 거주하는 만 3~6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하루 한 권씩 총 1,000권의 책 읽기를 지원하는 독서문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5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126명의 어린이가 참여하고 있다.

프로그램 참여 어린이에게는 개인별 '마롱독서노트'가 제공된다. 도서관에서 대출한 책을 읽은 뒤 권수만큼 독서 도장을 찍으며 기

록을 쌓고, 200권을 달성할 때마다 단계별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1,000권을 모두 읽으면 인증서와 마롱 기념품이 수여되며 어린이실 명예의 전당에도 이름을 올리게 된다.

고민철 영등시립도서관장은 “천 권 읽기 달성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꾸준히 독서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어린이가 책과 가까워지고 독서가 자연스러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사진=익산시>



무주 설천면 주민자치위원회 5개 기관·400여 명에 '옥수수 나눔'

무주군 설천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옥수수 나눔(10월)' 활동을 추진해 훈훈함을 더했다.

주민자치위원들은 지난 23일 설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옥수수를 손질하고 삶아 덕유산국립공원과 태권도원, 119소방대(설천지역대, 구천동센터), 반디랜드, 설천면 행정복지센터 등 지역 내 기관 5곳 400여 명에게 전달했다.

이번 활동은 지역을 위해 고생하는 기관에 감사를 전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박종용 설천면 주민자치위원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 주민들을 위해 애쓰는 분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나눔과 봉사활동 통해 따뜻한 공동체 문화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24명으로 구성된 설천면 주민자치위원회는 환경 정화 활동, 취약계층 지원, 지역행사 참여 등 다양한 주민 자치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무주=최희호 기자



고창 심원면 지사협 '안심불빛 벽부등 설치' 추진

고창군 심원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유정현, 민간위원장 현병채)는 취약계층과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안심불빛 벽부등 설치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사업은 골목길과 주택 출입구 등 야간 조명이 부족한 가구를 대상으로 벽부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범죄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병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세심하게 살피고, 주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심원면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복지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정현 심원면장은 “안심불빛 벽부등 설치사업이 야간 안전사고 예방과 범죄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맞춤형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여름철 혈액 부족 대응

정읍시는 2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청 광장 앞에서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혈액원과 함께 '2026년 제4차 사랑의 헌혈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휴가와 무더위로 헌혈 참여가 줄어드는 여름철 혈액 부족에 대응하고, 생명 나눔 문화를 지역사회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민과 공직자들은 신분증을 지참해 헌혈버스를 방문한 뒤 문진과 건강

강상태 확인을 거쳐 헌혈에 참여했다. 헌혈 참여자에게는 온누리상품권과 영화관람권 등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됐다.

시는 올해 앞서 진행한 세 차례의 헌혈 행사에서도 시민과 공직자 수십 명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오는 10월 22일에는 제5차 사랑의 헌혈 행사를 열고, 더 많은 시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혈액 수급 안정과



헌혈문화 확산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보태주시민과 공직자 여러분께

/정읍=김정인 기자



김제 금산면, 주민 손길로 피어난 '힐링 꽃밭'

김제시 금산면 원평천 일원(용호리 688-1)이 노랗게 물든 해바라기 물결로 장관을 이루며 주민들과 방문객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이번 해바라기 꽃길 조성은 금산면 청년회를 중심으로 이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지역 사회가 뜻을 모아 추진한 원평천 환경개선 활동의 결실로, 하천변에 방치되어 있던 각종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해바라기 식재와 물주기 제조작업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황금빛

해바라기 꽃밭을 조성했다.

최근 활짝 핀 해바라기를 보러 관내 원평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평강어린이집 원아 16명이 해바라기 꽃밭을 직접 방문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미지 금산면장은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가꾼 이 아름다운 꽃길이 일상의 힐링 공간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살기 좋고 쾌적한 금산면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은봉기 기자



익산 집수리학교 수료생들, 재능기부 봉사

익산시는 시가 후원하고 익산지역사회복지재단 주관한 '집수리학교' 수료생들이 교육 과정을 통해 습득한 실무 기술을 지역 사회에 환원하고자 지난 22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전격 펼쳤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시민이 행정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 기술 역량을 높인 뒤, 이를 다시 민간 복지 안전망의 주역이 되어 취약가구

민들의 생활 역량을 기르는 교육의 다각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배움과 나눔이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촘촘한 상생 공동체 활성화에 지

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모기감염질환 예방 위한 7가지 행동수칙



1
집 주변
고여 있는
물 없애기



2
질은 향수니
화장품
사용 지제



3
야외활동 시
밝은 색 옷
착용



4
모기퇴치제
올비르게
사용하기



5
과도한
음주
지제 하기



6
야외활동 후,
빈드시 샤워
하고, 땀제기



7
잠들기 전
집안
짐검 하기

〈一事一言〉



복날은 간다

배해수

무형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고고인류학 박사

복날이 오면 으레 떠오르던 음식이 있었다. 시골 장터나 읍내 골목에는 사철탕 집 간판이 걸려 있었고, 식당 안에서는 뽕배기마다 뜨거운 김이 피어올랐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국물 한 숟갈을 뜨고 나면 기운이 난다며 사람들은 웃었다. 초복과 중복 무렵이면 “올해는 한 그릇 했느냐”는 말이 안부처럼 오갔다. 이제 그런 풍경은 오래된 사진처럼 희미해지고 있다.

삼복은 농경사회가 만들어 낸 여름의 씬표였다. 봄부터 이어진 모내기과 김매기, 끝이 보이지 않는 논밭일로 지친 몸을 추스르는 계절의 이정표였다. 궁궐에서는 더위를 이기려며 관리들에게 얼음을 내렸다는 기록이 전하지만, 대부분의 백성에게 복날은 햇볕 아래에서 버터낸 노동의 시간이었을 것 같다. 한 끼 보양식으로 다시 일어서는 날이었다. 지역에 따라 닭과 미꾸라지, 장어, 어죽 등 기력보충을 위해 먹었고 개고기도 여름 보양식의 하나가 되었다.

복날 음식에는 미식보다 삶을 견디려는 절실함이 먼저 담겨 있었다. 오늘날의 눈으로 보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풍경도 있다. 그러나 어느 시대의 음식에는 그 시대 사람들이 살아온 환경과 형편이 스며 있다. 먹을거리가 넉넉하지 않았던 시절과 풍요로운 시대의 식탁은 같은 맛

대로 설명하기 어렵다. 문화는 언제나 시대와 함께 만들어지고 시대와 함께 변한다.

무엇보다 크게 달라진 것은 사회적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개의 위치이다. 예전에 개는 마당을 지키고 들과 산을 뛰어다니던 짐승이었다면, 이제는 가족이자 반려동물이다. 양말과 조끼를 입고 유모차를 타며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미용실을 다닌다. 사람보다 더 비싼 치료비를 기꺼이 감당하는 시대가 되었다. 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졌으니 식문화 또한 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인지도 모른다.

그래도 오래된 풍경 하나가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는 마음은 조금 복잡하다. 보신탕을 즐기던 사람들에게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농사일을 마치고 둘러앉아 땀을 식히던 여름 저녁이었을 것 같다. 시장에서 친구와 마주앉아 나누던 막걸리 한 사발의 추억이었다.

음식 하나에는 맛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음식을 함께 먹었던 사람과 장소, 그 시절의 농담과 웃음까지 함께 담겨 있다. 전통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풍습이 이어질 수는 없다.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사회가 변하면 문화도 변한다. 어느 문화든 생겨난 이유가 있었고, 사라지는 이유 또한 있다. 문화를 이해하는

일은 찬성과 반대를 가르기에 앞서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데서 시작된다.

이제 복날의 풍경도 달라지고 있다. 사철탕집 간판이 내려간 자리에는 삼계탕집과 장어집이 들어선다. 음식은 달라졌지만 무더운 여름을 견디며 서로의 안부를 묻는 마음은 여전히 남아 있다. 내년에도 복날은 달력 위에 다시 찾아올 것이다.

짧은 복날을 아쉬워 하는 ‘복날은 간다’라는 노래 제목처럼, 이제 무더운 여름을 넘고자 했던 복날의 풍경도 간다. 한때 흔했던 말과 농담이 자취를 감추고, 음식 하나가 사라지는 자리에는 한 세대의 기억도 함께 멀어진다.

사라지는 문화일수록 오래 이야기하고 충분히 이해한 뒤 보내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음식문화를 범으로 금지할 수 있어도 인간의 향수와 기억까지 금지할 수는 없다. 내년에도 달력에는 초복과 중복, 말복이 적혀 있을 것이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는 그 복날의 풍경은, 그래서 어쩌면 올해가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아쉬움이 여운처럼 남는다.

첫걸음을 환영한다. 이제는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

이원택 전북도지사가 총사업비 3조4,500억 원 규모의 국가사업을 정부에 건의하며 민선 9기 첫 국가예산 확보전에 나섰다. 단순한 예산 요청을 넘어 민선 9기의 핵심 공약을 국가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한 첫 공식 행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새만금 K-푸드 수출허브단지과 새만금 국가정원, 협업지능 피지컬AI 혁신캠퍼스, 군산조선소 5G 기반 MAX 실증 플랫폼, 국립식품박물관, 전주교도소 이전부지 국립문화시설 조성사업 등은 산업과 문화, 관광, 첨단기술을 아우르는 미래 성장전략이라는 점에서 전북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들은 과거처럼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중심에서 벗어나 AI와 K-푸드, 미래 제조업, 문화산업 등 국가 성장전략과 맞닿아 있는 분야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정부 정책과 보조를 맞춘 전략은 국가예산 확보 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접근이기도 하다. 전북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은 어디까지나 ‘건의’ 단계일 뿐이다. 국가사업은 정부에 요청했다고 자동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기획예산처 심의와 정부안 반영, 국회 예산 심의

를 거쳐야 비로소 사업이 현실이 된다. 지금은 출발선에 섰을 뿐이며,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더 많다.

그동안 전북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수많은 건의와 방문, 협의를 이어왔지만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그래서 도민들은 더 이상 ‘정부를 찾아갔다’는 소식보다 ‘예산 확보했다’는 결과를 원한다. 예산 확보는 행정의 질차가 아니라 정치력과 협상력, 그리고 실행력이 만들어내는 성과이기 때문이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이원택 지사를 중심으로 전북도와 지역 국회의원, 정치권이 정파를 떠나 하나의 목소리로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 필요한 것은 보여주지식 행보가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고 성과를 만들어내는 집념이다.

민선 9기의 첫 국가예산 확보전은 분명 희망적인 출발을 알렸다. 하지만 그 출발이 성공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국가예산은 건의서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경쟁과 끈질긴 설득 끝에 얻어지는 결실이다. 도민이 기대하는 것은 화려한 계획이나 대규모 사업 발표가 아니다. 전북의 미래를 바꿀 예산을 실제로 확보해 지역 발전과 도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원택 도정이 ‘건의한 도정’이 아니라 ‘성과를 만들어낸 도정’으로 평가받기를 기대한다.

▲오늘의시

그것은 연륜이다 / 박목월

어릴적 하얗은 사랑이나
가슴에 백여년 자랐다.

젊음과 보람이 멀리 간 뒤
나는 자라서 늙었다.

질 곱은 나무에는 자주 빛 연륜이
몇 차례나 몇 차례나 감기었다.

마치 세월도 사랑도
그것은 애달픈 연륜이다.

새벽 꿈이나 달 그림자처럼

시인 약력 : 1915년 경남 고성 출생. 대구 계성고등보통학교를 졸업했다. 서울 이화여고에서 교사를 했다. 서울대 등에 출강했고 1959년 한양대학교 문리대 학장을 역임했다. 1933년 ‘어린이’에 동시 통막막 통막막이 특선돼 문단에 데뷔했다. 1946년 조지훈, 박두진 등과 청록파를 결성하고 청록집이라는 시집을 발간했다. 군가인 ‘전우’를 비롯 포스코, 한국일보 사가 등을 작사하기도 했다. 1978년 영연에 들었다.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www.jeonbuktimes.co.kr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발행 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대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사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앙지사 010-98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전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

시민의 따뜻한 응원이 경찰을 더욱 강하게 합니다



경찰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입니다. 경찰과 시민의 관계는 때로는 애증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만이 생기기도 하지만,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112를 떠올리고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또한 시민입니다. 그만큼 경찰은 우리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공공기관입니다.

최근 장운기 사건으로 경찰 조직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경찰관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다. 그것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러나 일부 경찰관의 잘못된 모습으로 비춰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경찰관들은 폭염과 폭우를 마다하지 않고, 밤낮없이 범죄 예방과 교통관리, 실종자 수색, 각종 사건·사고 현장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잇따른 부정적인 소식으로 현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경찰의 사기는 곧 치안 서비스의 질과도 연결됩니다. 시민들의 따뜻한 격려와 신뢰는 현장에서 일하는 경찰관들에게 큰 힘이 되고, 더 큰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시민을 위한 치안 활동에 최선을 다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잘못한 경찰은 엄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성실한 경찰관들까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비판은 잘못을 바로잡는 데 필요하지만, 응원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줍니다.

시민의 따뜻한 격려 한마디가 현장에서 땀 흘리는 경찰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과 시민은 서로 대립하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동반자입니다. 잘못은 엄정하게 바로잡고, 성실한 경찰에게는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우리 사회의 신뢰와 안전을 더욱 굳건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김제경찰서 신봉지구대
경위 김현

잠시멈춰 분류하는 습관,

우리 모두의 미래를 바꿉니다

종이

플라스틱

빈병

전북타임스 연중 캠페인

관광 살리고 농업 잇다...임실군 투트랙 홍보 '성과'



임실군이 기존의 홍보전담부서 브랜드 가치를 전국화하고, 외부방문객 대거 유입,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 주민소득 향상 등 관광과 농업을 함께 살리는 이른바 '투트랙' 그 이상의 다각적·공격적인 홍보에 더욱 집중하면서 실질적인 홍보 효능감을 특출히 내고 있다.

홍보담당관 신설 및 기능 강화...관광자원·언론·SNS·고향사랑기부 연계 성과 가시화
옥정호, 치즈테마파크 등 주요 관광지 상반기 방문객 454만 명, 전년비 17만명 증가
군 공식SNS 구독자 5만명 달성 및 고향사랑기부 실적↑ 도내 상위권 군진
한득수 군수 "관광과 농업, 농특산물 경쟁력 등 트렌드 홍보 강화" 주민소득 향상 기여

홍보담당관 신설 이후, 임실군의 대내외적인 홍보 효과는 가시적이면서도 두드러진 성과를 이뤄냈다는 평가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관광객 증가 효과다.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1월~6월) 임실군 전체 방문객은 총454만 4,119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만312명이 증가했다.

이 같은 성과는 옥정호 붕어섬 생태공원과 출렁다리, 임실치즈테마파크, 오수의견관광지 등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충한 데 공격적인 언론홍보와 눈 뉴미디어 홍보를 연계한 통합 홍보체계를 구축한 것이 시너지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군은 홍보담당관 신설 이후 전국 단위 언론홍보와 SNS 콘텐츠를 병행하는 강력한 홍보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관광객 증가와 온라인 홍보 활성화, 고향사랑기부 확대, 임실군 브랜드 이미지 확산, 임실N치즈와 농특산물 판매 견인 등의 높은 홍보 효능감을 보였다.

실제 군의 대표 관광지인 옥정호는 상반기에만 98만 686명이 방문하며, 지난 해보다 20만3,495명(26.2%) 늘었다. 임실치즈테마파크는 상반기



누적 방문객 85만8,141명으로 지난해보다 8만 6,173명 증가한 가운데 올해 첫 개최된 임실N장미축제와 연계된 5월에는 41만1,960명이 방문해 전년 동월 대비 94% 증가했다.

국민관광지 사선대는 상반기 23만 2,822명이 찾았 지난해보다 1만 7,096명(7.9%) 늘었으며, 오수의견관광지는 11만2,610명, 성수산 왕의굴 9만 8,000여명이 방문하는 등 주요 관광지를 찾는 발길이 이어지는 등 관광홍보의 성과를 대신했다.

관광객 증가와 함께 온라인 홍보 성과도 두드러졌다.

지난 해 홍보담당관내 뉴미디어팀을 중심으로 관광과 농업, 주요정책 등을 알리는 영상과 사진, 숏폼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확산한 결과, 올해 6월기준 임실군 공식 SNS 채널 구독자는 5만5,933명으로, 2024년 말보다 1만7,830명(46.8%) 증가했다.

특히, 매일매일 군민들에 필요한 생활정보와

군정 주요정책 등을 알리며, 확산형, 생활형 SNS로 자리잡고 있다.

최근에는 한득수 군수의 지시에 따라 홍보가 필요한 각 읍면, 부서 등의 '정책알림'을 통합운영하는 홍보시스템 구축과 SNS 최신 트렌드에 맞춘 숏폼, 카드뉴스, 유튜브 등을 새롭게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이끄는 고향사랑기부제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달 19일 현재 기준 임실군의 고향사랑기부금은 총 2,920건으로 지난 해보다239건(8.9%) 증가했으며, 누적 모금액은 4억원을 넘어섰다.

이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후 통합적인 홍보를 통해 출향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이끌어 내고, 임실N치즈 등 농특산물 경쟁력을 적극 알린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홍보마케팅의 일환으로 서울과 자매결연지, 서울지하철, 전북권 주요 역사, 전국 규모 리조트 전광판 홍보를 비롯하여 축제는 물론 주요기관과 자매결연지 등을 직접 찾아가는 홍보마케팅, 홍보영상 및 소식지 제작 및 배포 등을 통해 임실군의 다각적 브랜드 홍보도 추진했다.

한득수 군수는 "임실군은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관광지원이 풍부하고, 축제 또한 성공적으로 잘 치르는 지역으로 널리 홍보됐지만, 관광의 외형적 화려한 효과가 주민 소득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광 및 정책 홍보와 함께 농업 활성화를 통한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람이 머물고, 행복이 자라는 임실시대를 열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제10대 김제시의회의 공익 출범

소통으로 하나 되고 실천으로 신뢰받는 의회



김진수 의회운영위원장



김승일 부의장



이정자 의장



오상민 행정복지지원원장



최보선 경제도시위원장



유진우 의원



추상현 의원



김명자 의원



오승경 의원



김민완 의원



정민우 의원



문순자 의원



손정애 의원



정경원 의원